

업계동향

LG產電(株), 최대수요전력 감시제어장치 개발

LG產電(株)(代表:李鍾秀)는 효율적인 전력관리를 위한 최대 수요전력 감시제어장치를 개발하고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

최대 수요전력 감시제어장치란 여름철 전력 예비율의 급격한 저하에 대비하여 전력 사용의 집중화 배제 및 부하의 평준화를 통해서 전력 수급을 안정시키고, 전력 요금을 절감하는 등 전력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 주는 기기를 말한다.

LG산전의 이번 제품개발로 그동안 여름철 전력사용의 과다로 인한 전력수급의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여름철 예비전력을 위한 발전소 건립등의 예산을 줄일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 효율적인 전력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최대 수요전력 감시제어장치는 사용 전력이 기준전력보다 많을 경우 예비경보를 발생해 사용자에게 전력관리를 하도록 알려 줄 수 있을 뿐만아니라, 시간대별로 전력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이 제품은 사용한 전력량을 오차율 0.5% 이하의 높은 정밀도로 계량할 수 있는 전자식 펄스변환기를 채택하여 한국전력에서 설치한 전력량계와의 오차발생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국내최초로 220V 전력선을 통신선으로 이용, 별도의 신호선이 없어도 원거리 통신이 가능한 것도 장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밖에도 이번 제품은 윈도우 95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누구나 쉽게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부하를 개별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미리 설정한 시간대별 스케줄에 의해 자동으로 부하를 제어할 수 있는 스케줄 제어기능을 부가하여 운영에 편리성을 도모했다.

한편 LG산전은 이번 제품의 개발을 계기로 향후 운영 소프트웨어 기능을 확장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LG, 大韓電線(株), 장거리 지중송전선 완공

大韓電線(株)와 LG電線(株)가 공동으로 시공한 미금-성동변전소간 국내 최초 장거

리 345kV급 지중송전선로가 완공돼 국가 전력계통화사업에 큰 획을 그었다.

大韓·LG등 양사는 지난 '93년말 발주기관인 韓國電力으로부터 공사비 총 5백40억에 이같은 수주를 받아 모든 공정을 마무리함으로써 앞으로 수도권내에서도 대용량급의 전력전송이 가능케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완료된 345kV O·F(Oil Filled)케이블 포설공사는 수도권 동부지역을 잇는 총연장 17km의 국내 최초 장거리 지중선로로 1공구는 LG전선이, 2공구는 대한전선이 시공, 약 4년간의 工期끝에 완공됐다.

특히 미금-성동변전소간의 초고압 송전

선로 건설은 최근 국가경제규모가 커지고 도심의 인구 밀집화에 따른 전력의 대용량화·고신뢰화와 함께 중전 철탑을 통해 架空송전방식을 달리한 지중송전방식을 채택, 도시 환경문제와 도심미관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함께 이번 공사는 국내 최초로 지하전력구의 밀폐형 FRP방재트러후내에 초고압케이블을 설치함으로써 주변의 지중배전선과 154kV급 지중송전선으로 부터 보호돼, 선로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킨데다 향후 부하증가에 대비 냉각시스템·전력구 감시시스템도 설치할 계획으로 밝혀져,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전력공급이 기대되고 있다.

三興重電機器工業(株), 고강도 MOF 개발 박차

三興重電機器工業(株)(代表:趙亨紀)가 과전류 강도가 150배인 고강도 MOF의 신제품개발시험을 업계 최초로 시작했다.

동사는 품질과 마케팅의 차별화를 위해 한국전기연구소에 개발시험을 신청 접수함에 따라 전기적특성시험을 실시한 후 과전류 강

도 시험도 받을 계획이다. 한편 삼흥중전기 기공업은 고강도 MOF의 사용이 내년부터는 의무화되지만 올해 상반기부터 양산체제에 들어가 종합건설회사 및 대용량 수용가를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